

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심의결과

- 연극 -

□ 심의일정

[1차] 행정심의 지원신청 부절격자 등 행정심의 결정사유 검토 ~ 2024.11.08.	▶	심의위원 사전 워크숍 심의방식 및 의무사항 등 안내 2024.11.20.	▶	[2차] 전문가 서류 및 토론심의 심의지표에 따른 심의위원 서류검토 및 토론심의 진행 후 개별재점 2024.11.21. ~ 12.24.	▶	[3차] 전문가 지원금 의결심의 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검토 및 지원금 의결 2024.12.20. ~ 12.30.
--	---	--	---	---	---	--

□ 심의위원회 명단

※가나다순

장르	심의 분야	심의위원
연극	A트랙	김성제 (前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소장), 석재원 (크리에이티브테이블 석영 대표), 이경성 (극단 크리에이티브 VaQi 대표,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교수), 이은경 (연극평론가, 한국연극평론가협회장), 최승연 (뮤지컬평론가, 한국뮤지컬협회 이사)
	B.C트랙	김요안 (두산아트센터 예술사업1팀장), 김정아 (연극배우), 박병성 (공연칼럼니스트, 공연한오후 대표), 배선애 (연극평론가), 임도완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 대표, 서울예술대학교 공연학부 교수)

□ 세부 선정결과

※ 지원결정액은 창작지원금과 활동비(정액 3,000천원) 및 회계검증수수료를 포함한 결정액임.

○ A트랙

※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	202506503	극단 태양의바다	누벨바그, 타락을 향한 New wave	25,000,000
2	202505626	김상훈	스와이프!	25,000,000
3	202505580	네이키드블루스	이 세상 너머	25,000,000
4	202504082	더틸스튜디오	연극 <뼈의 기록>	25,000,000
5	202504108	바투 행위하다	꿈의 조각들	25,000,000
6	202500583	박소희	(가제) 함께 살아가기 프로젝트 : 심화	20,000,000
7	202501295	서사림	창귀들	25,000,000
8	202504573	유지수	레몬(R.Lemon)	25,000,000
9	202502643	이예본	로비: 기어코 그 손을 잡고	25,000,000
10	202500573	이정민	안젤리나 졸리 따라잡기	25,000,000
11	202504177	이지혜	레이디 맥도날드	25,000,000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2	202506305	이홍도	이홍도 자서전(나의 극작 인생)	24,000,000
13	202502619	임선영	반짝 희라	25,000,000
14	202504411	임진희	할머니의 언어사전	25,000,000
15	202505237	전석희	이머시브 미디어 퍼포먼스 <겨울잠>	24,000,000
16	202503957	전웅	국산군인	25,000,000
17	202503794	조민영	미래는 현재를 축복한다	24,000,000
18	202502739	조정빈	호러블 무비 씨어터:납과 복숭아	23,000,000
19	202505768	최영원	톤지루	24,000,000
20	202500296	프로젝트그룹낙타	장난 삼아 연애하지 마소	25,000,000

○ B트랙

※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	202505652	공놀이클럽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	35,000,000
2	202504903	권세미	희미하고 불쾌한 타인들 : Virtual Democracy	35,000,000
3	202503381	극단 바바서커스	맥베스 REPORT	35,000,000
4	202506110	극단 빨강도마뱀	먹태강에 대한 명상	34,000,000
5	202501446	극단 사개탐사	마지막 면회	35,000,000
6	202506128	극단 신세계	하미	35,000,000
7	202500983	극단 이티에스	THE FLICK	35,000,000
8	202504257	극단비밀기지	<카르타고>	35,000,000
9	202504552	글과무대	번아웃에 관한 농담	35,000,000
10	202503858	김미란	파인 다이닝	35,000,000
11	202504691	김민주	명태 말고 영태	34,000,000
12	202502077	김은미	춤추는 립스틱	35,000,000
13	202505122	김현우	팬데믹플레이	35,000,000
14	202500811	문화예술협동조합아이야	수상한 제삿날	35,000,000
15	202503933	스토리 포레스트	ARCADIA	35,000,000
16	202501970	예술창작공장Comma,and	힐마운트 더퍼스트 센트럴포레 로얄그랜드 스타파크 위례시티	35,000,000
17	202503192	예시공 프로젝트	굿 위도우(Be a Good Little Widow: A Funeral)	33,000,000
18	202500919	유한회사 극단기일게	굿피플	35,000,000
19	202501978	이야기꾼의책공연	작품 [날말공장나라] 레퍼토리화 프로젝트	35,000,000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20	202503846	이준우	하얀 총동	35,000,000
21	202505945	작당모의	무릎을꿇었는데겨드랑이가따끔하여	35,000,000
22	202500309	창작집단LAS	연극 <선택>	34,000,000
23	202501083	코끼리들이웃는다	마주하는	35,000,000
24	202501244	코너스톤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율놀이	35,000,000
25	202505444	프로젝트1인실	어느 날 문을 열고	35,000,000

○ C트랙

※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	202500397	극단 산수유	GOTT	45,000,000
2	202502358	극단 여행자	운전 배우기	44,000,000
3	202504002	극단돌파구	아이들	45,000,000
4	202503277	극단동	제비심장	45,000,000
5	202501237	극단미인	금성여인숙	45,000,000
6	202505251	극단한양레퍼토리	이머시브 연극 <버닝필드: 파동, 흘러간 아픔의 기록>	43,000,000
7	202501105	달과아이극단	고양이가 말했어	43,000,000
8	202506018	무브먼트 당당	선택(가제)	44,000,000
9	202505295	성북동비둘기	알바의집, 배로나르다	42,000,000
10	202500063	씨어터 백	더 클래스	40,000,000
11	202502641	연극집단 반	미궁(迷宮)의 설계자	45,000,000
12	202506013	오세혁	관저의 100시간	45,000,000
13	202502114	이성열	다 내 아이들 (All My Sons) (연극)	45,000,000
14	202504972	최치언	안산, 황금용	44,000,000

○ C트랙 다년지원 (2024-25년, 2025-26년 동일작품 연속지원)

※ 구분 내 가나다순 / 단위 : 원

구분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연속선정) 2024-2025 다년지원	1	202500397	극단 산수유	GOTT
	2	202502641	연극집단 반	미궁(迷宮)의 설계자

구분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신규선정) 2025-2026 다년지원	1	202504002	극단돌파구	아이들
	2	202503277	극단동	제비심장
	3	202502114	이성열	다 내 아이들 (All My Sons) (연극)

※ 2025-2026 다년지원 선정작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 후 전문가 현장평가를 참고하여 연속지원 여부 및 지원금 규모 확정 예정(2025년에 선정된 동일 작품으로 연속지원)

□ 심의총평

□ A트랙

A트랙은 '연극하기'를 개인과 연결하는 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가장 많은 주제는 청소년과 청년 문제였습니다. 청년들의 번아웃, 고독사 문제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당사자로서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나'라는 개별적인 세계를 발언하고자 해석의 틀을 확립해 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인간과 비인간에 대한 고려가 훨씬 구체적이고 다각화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차세대 연극인들이 이를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실제 삶과 미래의 모습을 훨씬 정교하게 다듬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양식적으로는 다양한 실험적 접근이 돋보였습니다. 장소 특정적, 이머시브(immersive), 버바티움(verbatim), 디바이징(devising), 다큐멘터리(documentary) 극은 물론이고 AI를 등장인물로 설정하여 극 안에 주체적으로 끌어오는 시도도 여러 차례 관찰 되었습니다. 전통 연희, 인형극, 음악극, 창작 뮤지컬, 스포츠를 활용한 연극, 기술과의 결합을 적극 시도하는 연극 등 전통적 연극의 개념을 확장하고 해체하는 시도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희곡 중심의 텍스트 기반에 큰 비중을 두는 프로젝트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극적 구조에 충실하여 작품 세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 또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공연계의 흐름을 다른 방식으로 돌파해나 가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연극계의 다양화에서 차세대 연극인들이 전존재를 걸고 앞장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원서 대부분은 명확한 의도와 계획을 제시했지만, 일부는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불충분하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모든 단체(개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하고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 먼 훗날 빛나는 자신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용기와 힘을 얻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B트랙

B트랙은 예술 창작 방향성을 구체화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통해 동시대적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탐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연극은 늘 현재의 관객과 만나는 예술이므로, 어떠한 소재를 택하든 동시대적인 고민과 접근이 중요합니다. 동시대 연극이 무엇인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연극이 어떻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여러 작품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루는 연극 주제가 광범위 하였는데, SF, 기후위기, 세대문제, 사회적 재난, 장애, 젠더 등 동시대적 이슈 뿐만 아니라 역사물, 지역문화, 사적 경험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품은 주제의 깊이를 충분히 탐구하지 못하고 현상 접근에만 머무르며 깊이 있는 성찰에 이르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머시브(immersive) 연극, 다큐멘터리(documentary)형식, 기술 융합 등 실험적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형식적 시도가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술을 융합한 작품에서는 기술과 예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연극 언어를 실험적으로 발전시키는 철학적 깊이가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

작품 개발 과정은 점차 체계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리서치 랩(research lab)을 통한 체계적인 작품 개발 과정과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통한 독창성과 완성도 향상은 주목할 만한 흐름이었습니다. 재연 작품의 경우에는 단순 반복보다는 새로운 시도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경우를 보다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연극인들의 열정과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펼칠 예술적 도전이 공연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확신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예술가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예술가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C트랙

C트랙은 수년간의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 저력 있는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였던 단체(개인)들이 대다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 탐구와 새로운 연극 형식을 통해 연극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작품 주제의 깊이와 사회적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었으며,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연극 형식에 대한 도전과 기술적 융합을 세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트랙은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SF, 세대갈등, 기후 및 환경, 장애와 젠더, 이주민 및 디아스포라(diaspora)와 같은 동시대적 이슈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노인 문제, 세대 간 갈등, 가족 해체 등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 문학의 성취에 대한 연극적 접근을 시도한 작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연극 형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과 극적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형식을 도입할 때 융합의 의미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작품의 메시지가 흐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연극 언어 형식이 단지 흥미로운 시도로 끝나지 않고, 그 형식과 내용이 극적 의미와 사회적 메시지를 충분히 뒷받침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작품들이 예술적 완성도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새로운 형식과 시각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는 연극 언어와 예술적 메시지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희망을 다시금 발견하게 했습니다.